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10. 24.(월) 06:00 ~ 23:00
- 상담건수: 882건

II. 주요의견 내용

○ 진행자 호평(2명)

- 프로그램명 : 「노래가 좋아」
- 방송일시 : 1TV (일) (09:05-10:00)

끼 많은 일반인들의 가창력과 인생사 듣는 재미에 빠져 매주 시청해왔다. 특히 발달하고 유쾌한 김선근 아나운서가 톡톡 튀는 진행으로 해당 방송의 감초 역할을 해왔는데, KBS를 떠나 프리랜서로 나서며 해당 방송을 떠나게 되어 서운하다. 그동안 「노래가 좋아」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감사하다.

○ 진행자 제언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일시 : 2022. 10. 24.(월) 1R (12:20-13:58)

해당 방송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시사이슈들을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주어 직장인들이 청취하기에 좋다. 그런데 진행자가 한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든다. 또한 출연하는 패널들도 한 쪽으로 치우쳐있어 균형 잡힌 의견을 듣기 어렵다. 조금 더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가요무대’ 외 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882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444	57	-	-	381	882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92	252	30	-	-	208	882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52	730	-	882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13	10	127	132	882

시청자 의견	문 의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 9」 - 진행자 호평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가 좋아」 - 진행자 호평 ○ 「열린음악회」 - 방송 호평 ○ 「1박 2일」 - 출연자 섭외 요청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드라마 「진검승부」 - 출연자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영일의 시사본부」 - 진행자 제언 ○ 「주현미의 러브레터」 - 선곡 호평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달걀 문의」 연락처 문의 36건 ○ 「2TV 생생정보」 - 「풍천장어구이」 연락처 문의 25건 ○ 「열린음악회」 - 「방청 신청」 문의 16건 ○ 「가요무대」 - 「방청 신청」 문의 13건 ○ 「전국노래자랑」 - 「진행자 제언」 13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7건 ○ 「수신기술」 문의 1건 외 2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48건 ○ 「수신료」 문의 37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2건 ○ 「전화교환」 문의 17건 ○ 「주차」 문의 2건 외 1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32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의견	세부내용
출연자 섭외 요청	<p>○ 「1박 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0. 23.(일) 2TV (18:20-20:00) - 멤버들이 전국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 곳곳을 구경할 수 있는 점도 재미의 한 요소다. 그런데 현재 5인 체제로 진행되다 보니, 게임할 때 짝이 맞지 않고 예전보다 박진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끼와 흥이 많은 출연진을 섭외해 다시 6인 체제로 「1박 2일」 다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드라마]	
출연자 호평	<p>○ 수목드라마 「진검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수-목) (21:50-23:00) - 부와 권력이 만든 성역, 그리고 악의 무리들을 시원하게 깨부수는 액션 수사극이다. 아이돌 그룹 엑소 출신 배우 도경수 씨가 출연해서 관심 있게 시청 중인데, 악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라면 편법과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꼴통 검사 역할을 잘 소화하는 것 같아 칭찬하고 싶다. 가수 출신이라는 편견을 깨고 훌륭히 역할을 소화하는 도경수 씨를 계속해서 응원하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라디오]	
진행자 제언	<p>○ 「최영일의 시사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0. 24.(월) 1R (12:20-13:58) - 해당 방송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시사이슈들을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주어 직장인들이 청취하기에 좋다. 그런데 진행자가 한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든다. 또한 출연하는 패널들도 한 쪽으로 치우쳐있어 균형 잡힌 의견을 듣기 어렵다. 조금 더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선곡 호평	<p>○ 「주현미의 러브레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0. 24.(월) 2R (09:00-11:00) - 주현미 씨의 방송을 애청하는 청취자이다. 주현미 씨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진행이 마음에 들고, 708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옛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선곡해주는 점도 만족스럽다. 특히 이날따라 선곡이 좋아 등산하는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청취했다. 늘 다양하고 풍요롭게 선곡해주는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